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25일 개막

각종 전시관서 다양한 국화 조형물 선보여

익산시는 오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제16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꿈과 사랑의 나라로 떠나는 국화 여행'이라는 주제로 형형색색 오색물결 가득한 국화 속에서 인생 최고의 사랑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연출된다.

또한 LED조명을 설치해 화려한 야경을 즐길 수 있으며 매일 새로운 사랑여행 이벤트를 실시하여 사랑여행 일번지로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축제장 정문에 들어서면 분홍빛 핑크플리도 이루어진 '핑크빛 사랑길'을 시작으로 익산에서 파리까지 기차여행을 희망하는 '유라시아 희망열차', 파리 에펠탑, 이집트 스피그스를 만날 수 있으며 이어지는 '무지개빛 사랑 터널'에서는 LED조

명과 화려한 꽃밭이 어우러진 시계꽃, 관상호박 등 이색적인 꽃과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중앙광장에 설치된 10m 높이의 '아름드리 국화언덕'에서는 거대한 국화꽃 풍차에서 불어오는 사랑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고 20m 규모의 '국화향기공전'에서는 마치 동화속 풍경에 온 것처럼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유료구간인 특별전시관 내에 마련된 '어린이 동화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다. 이곳은 동화 '신데렐라'를 메인테마로 유리 구두, 호박마차 등 토끼어리와 국화 조형물로 꾸며졌으며 아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꼭 관람해야하는 추천코스이다. 또한 입구에 조성된 24m 규모의 '천만송이 드림 캐슬'은 화려하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특별전시관 입장료는 3,000원이며 익산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

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전액 교환쿠폰으로 교환해 축제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특별전시관 외 대부분의 전시구간은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번 축제를 사랑여행 일번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웨딩 스테이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이언트 꽃다발', '로맨틱 캔들 하우스', '판타스틱 미러 하우스' 등에서 특별한 사랑고백 인증샷을 남길 수 있으며 매일 새롭게 펼쳐지는 사랑고백 이벤트도 체험할 수 있다. 특별한 사랑고백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 연인, 가족 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화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 후 축제 방문 인증샷을 개인 SNS에 남기면 된다.

갑술함에 작성한 편지를 보관했다가 1년 후에 소중한 추억을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도 개최된다. 2020 타임캡슐 사랑편지 이벤트는 1일 3회, 10일간 운영되며 즉석에서 축제 방문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2천20

명에 한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국화축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진행된다.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를 기획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직원들은 15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직접 국화 조형물을 제작하고 1년 동안 8만 여점의 국화를 재배해 타 지자체보다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우수 국화작품이 전시되는 실내전시관에는 다문대자, 현애 등 800여점의 전국 최고의 대형 국화작품과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50여종의 국화신품종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국화 분재경진대회와 분재전시관에는 현애자, 모양자 등 총 200여점의 다양한 국화 분재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국화사랑연구회원들이 1년 동안 재배한 것으로 오는 24일까지 출품된 작품에 한해 우수작품 13점을 선별해 농촌진흥청장상, 도지사상, 익산시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장양원 기자



군산시는 오는 29일 OCI(주) 군산공장에서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군산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9일 OCI 군산공장서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는 오는 29일 OCI(주) 군산공장에서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군산시, 환경부, 전라북도, 군산소방서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해 단

계별 대응능력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는 국가종합훈련이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훈련을 위해 기획팀을 구성·운영하고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에 박차를 가해 군산시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시민체합단 모집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있으며 모집인원은 1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확보

6천5백만원 확보... 도내서 두 번째로 많아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해마다 증가해 확보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2018년도 실적) 결과 재정 인센티브 6천5백만원을 확보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안부가 17개 시·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뉜다.

특히, 2018년도 실적부터 정량평가 평가방식이 기존에 등급으로 평가하던 상대평가 방식에서 지표별 목표

달성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됐다. 군산시는 변경된 평가 체계에 맞춰 지표담당자와의 1:1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워크숍 등을 통해 지표매뉴얼 숙지 및 지표 분석 등 정량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다했다.

그 결과 1건의 정성지표가 중앙부처(보건복지부)에 선정('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됐으며, 전체 90개의 정량지표 중 62개(68.9%) 지표를 목표 달성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귀금속 공용장비 지원

익산시가 오는 21일부터 12월말까지 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전북디자인센터에서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과 디자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귀금속 공용장비 지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귀금속 공용장비는 지난 6월 귀금속보석클러스터와 전북디자인센터 통합 운영방안에 따라 왕궁지식산업센터 1층 4실에 24종이 구축 완료됐다. 장비 지원서비스는 전북도·익산시·전북테크노파크 협약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장비는 주조, 광택, 성분 분석 및 감별기 등 전반적인 제조 장비뿐만 아니라 3D 디자인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다이아 커팅기가 포함돼 있어 업체들의 생산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귀금속 공용장비 이용 방법은 전북디자인센터 홈페이지(http://bdc.jtbc.or.kr)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왕궁지식산업센터 1층에서 장비를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디자인센터 디자인지원팀(담당 최진열, 063-839-0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원광대 전자융합공학과 대학원생 아르만도 씨, 국제 학술지에 논문 게재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전자융합공학과 석사과정 아르만도(28)씨가 IEEE ACCESS저널에 선택적 자기온열암치료법을 주제로 논문을 게재한데 이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 논문을 응용물리 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인 Journal of Applied



Physics 10월호에 게재했다. '자기온열암치료를 위한 정적자기장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발열 제어 및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아르만도 씨는 자기고주파온열치료에서 나노입자의 발열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론 및 실험적으로 이를 검증했다. 아르만도씨는 전자융합공학과 김성훈 교수의 연구 지도를 받아 나노입

자와 전자지제어시스템을 이용해 비침습기반의 암치료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노입자를 이용한 자기온열치료 방법에서 비침습 방법으로 온도제어가 불가능했으며, 김성훈 교수 연구팀은 외부의 정적인 자기장을 이용해 나노 입자의 발열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론 및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도내 자활생산품 순회장터 운영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자활생산품 순회장터가 군산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내 지역자활센터 생산품을 홍보·판매하는 장터가 오는 17일 군산시청 1층 열린민원관 옆 야외공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장터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전북광역자활센터 주관, 도내 8개 시·군의 21개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제품들이 홍보·판매된다.

주요 판매 품목으로 귀금속, 천연비누, 가족제품 등 수공업품과 우리밀 쿠키, 건강뽕, 두부를 비롯한 식료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군산시에서는 군산지역자활센터가 김부각과 켄빵, 한마음지역자활센터가 향초, 누룽지, 각종 양말류 등을 판매한다.

순회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도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자들의 성과급 지급 및 자립을 위한 씨드머니로 활용하는 등 자활사업에 재투자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소방서, 요양병원 인명구조 대피 훈련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제로화와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인명구조 및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5일 내동동에 소재한 은파요양병원에서 실시한 이날 훈련은 병원 관계자들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전처럼 수직 구조대를 활용한 인명구조와 거동불가 환자를 침상으로

대피공간까지 이동하는 인명 대피소방훈련으로 진행했다.

훈련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는 "거동불가 환자를 침상 그대로 대피공간으로 이동하고 수직 구조대 인명 대피 훈련으로 피난 기구 사용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친절행정 만족도 '긍정'

조사결과 종합 90.1점 획득... 친절교육 등 '결실'

익산시가 최근 실시한 '2019 친절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90.1점을 획득해 민선7기 친절행정 시책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익산시민 1,000명 대상으로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시는 직원들의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해 각종 친절행정 사업들을 중점 추진한 것이 이번 평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친절 마인드가 우수한 직원에게 서비스 감사 자격 취득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친절 전문 내부 부서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친절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시정 경험이 풍부한 내부 친절강사를 확보해 부서별 상황에 맞는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원업무 역량 제고와 현장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인허가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

로 기본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민원상 황별 응대방법 등의 친절역량 교육도 실시했다.

생동감 있는 근무환경 조성하고 민원인에게 즉각적인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 친절마인드 향상 관련 내용을 방송해 전 직원들이 청취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직원 상호간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추진으로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 조성 및 친절한 직장 분위기 형성을 통해 민원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되도록 매월 캠페인 운동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담당자를 찾지 못해 해매는 민원인이나 민원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읍면동직원을 직접 안내도움미 자청해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는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친절행정 분야별 조사 결과를 각종 시책사업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시민 중심의 시장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